조 베일리 웰스 주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교 간 화합에 관한 이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홀라, 봉주르, 부에나스 디아스, 세계 어디에 계시든 환영합니다. 저는 조 베일리 웰스입니다. 저는 램버스 콜을 전 세계 교회 공동체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팀의 일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웨비나는 종교 간 화합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이 웨비나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이 램버스 회의라는 제 3 단계 여정에 대한 이 호소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하고 싶다는 영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shareryourstory@lambethconference.org) 이메일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이 이 호소 중 하나와 관련되거나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하신 일에 대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나무를 심는 일일 수도 있고, 안전한 교회 담당자를 임명하는 일일 수도 있으며, 오늘처럼 종교 간 대화에 참여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오늘 이 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공회 교단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제에 감사드리며, 온갖 다양성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신앙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법을 알게 하소서.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소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램버스 선언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선언이 여러분의 사역에 영감을 주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과 관계를 맺고 동시에 신앙을 선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세계 각지의 손님들을 모시고 그들이 어떻게 종교 간 관계에 참여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 선언을 더 깊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룹 토론을 위한 새로운 성경 공부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호소는 램버스 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신 분은 동남아시아 교회 관구 쿠칭 교구의 다날드 주트 주교님입니다. 다날드 주교님은 성공회 종교 간 위원회 의장을 맡고 계시며, 이 모든 램버스 호소 웨비나 조직 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교님과 저는 현재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 계시며, 종교 간 대화를 주제로 한 지도자 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우리는 다리 놓기와 평화 구축을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자, 다날드 주교님, 환영합니다. 먼저 람베스 종교 간 대화 호소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날드 주트 주교

조 주교님, 감사합니다. 이 웨비나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람베스 종교 간 관계에 관한 호소는 2022 년 캔터베리에서 열린 람베스 회의에서 주교들이 발표했으며, 이 호소는 교회 내 모든 이가 기도와 실천을 통해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호소문 전문을 읽어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램버스 회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선언문은 다른 종교와 다양한 전통 및 신앙을 가진 이들과 함께 공동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종교 공동체 간 이웃을 위한 평화 구축을 실천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해를 받는 기독교 형제자매들과 연대할 것을 요청하며, 분명히 그러한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특히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 다른 종교 전통을 가진 이웃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겸손한 봉사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 웨비나에서는 초대된 몇몇 분들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일들을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배우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조 주교

감사합니다, 다날드 주교님. 다음 질문은 주교님이 계신 쿠칭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곳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지, 그리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고 섬기려 노력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날드 주교

네, 쿠칭은 말레이시아의 일부이며, 쿠칭 주교로서 저는 사라왁 주와 브루나이 국을 관할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레이시아 내 상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대부분 무슬림으로, 인구의 약 64%가 이슬람교도이며 17%는 불교도, 9%는 기독교도, 6%는 힌두교도이고 나머지는 무신론자나 종교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슬람교는 연방의 공식 종교이며, 헌법은 다른 종교도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는 주로 이슬람교의 법적·헌법적 지위, 적어도 정치인과 무슬림들이 이해하는 바에 따른 결과로, 다른 종교 신자들이 예배와 복음 전파에 압박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의 경우 복음을 전파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새 교회 건축이나 묘지 및 기타 확장용 토지 확보와 같은 하느님의 사역을 확장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 협력하기를 원하지만, 당국과 정부, 그리고 무슬림 지도자들로부터 종종 도전과 문제를 마주합니다. 그들은 우리 비무슬림들을 불신자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용되는 표현은 우리 비무슬림들을 '카피르(kafir)'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맥락에서 이 용어는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카피르라는 단어는 '크다', '부정하다', '더럽다' 등을 의미하므로 매우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고합니다. 사라왁 주 정부 내에는 다른 종교를 위한 부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슬람 외 다른 종교들이 협력하는 곳이며, 우리 각자도 열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의 축제를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통합, 더 나은 말레이시아와 사라왁을 위한 우리의 열망을 확인하고, 물론 하느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함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현실상, 특히 무슬림 친구들로부터 오는 도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조 주교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날드 주교님, 이제 첫 번째 손님을 모실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날드 주교님께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날드 주교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드리자면, 방글라데시 교회의 친구 수바짓을 초대하겠습니다.

수보짓 몬달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주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수보짓 몬달입니다. 방글라데시 교회의 프로그램 디렉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 사역은 전국의 청년, 여성, 어린이 및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일의 상당 부분은 다른 종교 의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종교 간 교류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일상적인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방글라데시는 풍부한 다양성의 고향입니다. 인구의 약 90%는 무슬림, 약 8%는 힌두교도이며, 소수의 불교도, 극소수의 기독교 공동체, 그리고 각자의 전통을 가진 수많은 원주민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을에서 이웃과 함께 산다고 믿습니다. 무슬림과 힌두교도가 서로의 축제를 함께 나누고, 때로는 수확철이나 재난 시 서로 돕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가 때로는 정치화되어 권력이나 민족주의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극단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분열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 힌두교도, 불교도, 원주민을 포함한 소수 집단은 차별과 토지 몰수, 강제 결혼, 심지어 폭력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범한 사람들의 회복력은 저에게 희망을 줍니다. 가족들은 종교적 경계를 넘어 서로를 계속해서 지지합니다. 위기 상황이나 지역 사회에서는 지도자들이 대화를 위해 모입니다. 분열을 부추기는 헤드라인보다 일상적인 연대의 실천이 조화를 유지하는 데 훨씬 더 큰 역할을 합니다.

다날드 주교

종교 간 관계 측면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수보짓

방글라데시 교회는 인구의 0.5% 미만으로 매우 소수이지만, 우리의 기여는 숫자보다 큽니다. 학교, 병원,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깁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종교 간 교류는 우리 사역의 핵심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우리 지도자들은 무슬림, 힌두교도, 불교도와 함께 종교 간 대화 플랫폼에 참여합니다. 갈등이 발생할 때면 우리는 공개적으로 함께 서서 평화, 정의, 상호 존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째는 평범한 사람들의 회복력입니다. 정치적·극단주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대부분의 가정들은 다른 신앙을 가진 이웃들과 평화롭게 공존합니다. 이는 저에게 희망을 줍니다. 둘째, 젊은 세대는 오래된 분열을 넘어설 것을 원합니다. 그들은 정의, 평등, 상호 존중을 갈망합니다. 그들의 열린 마음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셋째, 우리 신앙의 신학적 토대입니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함을 사랑하며, 우리 하느님과 겸손히 함께 걷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씀은 종교 간 관계에 직접 적용됩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겸손히 함께 걸으며, 이웃에게 공의롭게 행동하고, 종교적 경계를 넘어 인자함을 베풉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다날드 주교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친구들? 이제 앤드류 스미스 신부께 이 시간을 넘겨, 그분께서 자신을 소개하시고 다음 손님을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스미스 신부

안녕하세요, 다날드 주교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앤드루라고 합니다. 영국 버밍엄 교구장님의 종교 간 관계 담당 디렉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회 종교 간 위원회의 서기도 맡고 있습니다. 저는 30 년 넘게 버밍엄에서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살며 일해 왔습니다 . 또한 청소년과 다양한 문화를 우정으로 연결하는 '더

피스트(The Feast)'라는 자선 단체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음 게스트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루이사 모젤라(Louisa Mojela)를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루이사, 환영합니다.

루이사 모젤라

감사합니다, 앤드류.

앤드류 신부

루이사, 당신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여성 투자 포트폴리오 홀딩스(WIPH)'를 설립하셨는데, 이 단체와 그 안에서 당신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루이사 모젤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성 투자 포트폴리오 홀딩스 회사는 1994 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새로운 체제를 맞이하기 직전에 설립되었습니다. 저와 동료 세 명이 결심한 바는, 여성 특히 흑인 여성들이 역사적으로 주류 경제와 금융 서비스 참여에서 배제되어 왔다는 점이었어요. 우리의 의도는 여성으로서 스스로를 결집하고 자금을 조달하여, 여성으로서 가치를 더할 수 있다고 믿는 경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94 년 회사를 설립했고, 이 회사는 오늘날까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적으로 여성들이 소유하고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3 억 랜드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비정부기구도 설립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앤드류 신부

정말 놀랍네요.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여성들과의 협력 활동, 그리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만남,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루이사 모젤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슬림이었던 고인이 된 남편과 결혼했었는데, 우리는 서로의 신앙과 종교를 존중했거든요. 라마단 기간에는 제가 그를 지지하며 함께 금식했고, 사순절에는 그가 금식하며 크리스마스에 저를 지지해줬습니다. 모든 종교적 명절에 그는 저를 지지해 주었고, 마찬가지로 저도 무슬림 명절에 그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다른 종교를 가진 여성들과의 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유대교, 힌두교, 무슬림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 남편과 시누이들도 포함되어요. 우리는 많은 협력을 합니다. 저에게 이 모든 것은 서로 협력하고, 분열을 조장하기보다 다리를 놓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한 분의 위대한 신, 한 분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이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기본적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앵글리칸이 되기 위해 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무슬림이 되기 위해 개종할 필요도 없지만, 서로를 존중합시다. 특히 젊은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의 에너지를 어떻게 함께 모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그들이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들은 조화로운 우주를 믿습니다.

앤드류 신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종교 간 협력을 들으니 정말 고무적이네요. 루이사, 미래를 바라볼 때 무엇이 희망을 줍니까?

루이사 모젤라

저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바로 협력의 지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램버스 선언이 우리 성공회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나아가 친구를 사귀고, 다리를 놓으며, 다른 종교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라고 일깨워 주었듯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 우주에 사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평화의 씨앗을 심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협력하고, 다리를 놓으며, 서로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에게 존엄성이 부여될 때, 평화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저에게 희망을 줍니다. 훌륭합니다.

앤드류

정말 감사합니다. 루이사, 고마워요. 파울로에게 마이크를 넘기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파울로 우에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파울루 우에티입니다. 아비게일 리지를 환영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 기쁩니다. 그녀는 평신도 사역자이며 아르헨티나 종교 간 문제 담당 대표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거주하며 성공회 종교 간 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녀가 함께해 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르헨티나와 그곳의 다양한 종교들, 그리고 교구 내에서 당신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비게일 리지

고마워요, 파울로.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르헨티나는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6 세기 스페인 식민지배의 결과로 강한 기독교적 유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19 세기 초 이민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면서 형성된 다종교적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유럽에서 전파되었고, 이후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주의 신앙을

소개했으며, 20 세기에는 오순절교가 추가되었습니다. 우리는 혼합적이고 역동적인 종교적 풍경을 지니고 있는데, 식민지 시대의 학살과 19 세기 후반 자유주의 경제 프로젝트에서 살아남은 원주민들의 종교가 점차 정당한 지위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인 9 명 중 1 명은 신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무신론은 우리 사회의 주요 특징이 아니며, 비공식적 대중 종교성은 국민 일상생활의 일부다. 초월적 존재에 대한 개방성은 아르헨티나 문화의 핵심 요소인 아르헨티나적 정체성( )의 일부다. 현재 종교 지도를 보면, 인구의 62.9%가 가톨릭 신자라고 밝힌다. 18.9%는 종교가 없다고 선언한다. 복음주의자는 15.3%를 차지한다. 유대교, 이슬람교, 역사적 개신교 및 기타 신앙을 포함한 기타 종교는 3%를 차지한다. 이러한 양상은 종교적 소속감이 없는 사람들의 증가와 함께 더 큰 다양성으로의 추세를 반영한다. 최초의 유대인 공동체는 19 세기 말에 도착하여 현재 라틴 아메리카 최대이자 세계 7 위의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했다. 무슬림 공동체도 주로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도착하여 다른 신앙과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2000 년 이후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라틴아메리카 최대의 모스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의 종교적 유산은 오늘날 오순절교의 확장으로 이어지며, 이는 대중적 요구의 촉매제 역할을 하여 전통적 가톨릭의 기독교적 감수성을 이 새로운 교회론적 모델로 재편하고 있다. 종교 분야의 역동성은 신념의 문명화 및 개인화 과정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독교 문화적 토대는 자유와 예배, 평화라는 다양한 맥락 속에서 언어, 관행, 이념에 계속 스며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현재 부에노스아이레스 소재 앵글리칸 교회인 굿 셰퍼드 교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로 목회 지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모국에서 어머니 연합회 산하 사역 단체인 아마레(Amaré)의 회원입니다. 아르헨티나 기독교 교회 에큐메니컬 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다양한 기독교 교파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기관입니다.

파울로

이처럼 다양한 상황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구가 원주민들과 함께 하는 사역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음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인도주의적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비게일 리지

현재 제가 소속된 아르헨티나 중남부 교구는 남미 성공회 관구의 다른 교구들과 협력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북부 교구가 위치족, 토바족, 초로테족 등 원주민 공동체를 관할합니다. 원주민 선교는 페루, 파라과이, 볼리비아의 동일 관구 내 다른 교구들과 칠레 성공회 관구까지 아우르는 횡단적 영역입니다. 우리나라 성공회는 90%가 지역 지도자들이 이끄는 원주민 출신 신자들로 구성됩니다. 먼저, '엘 그란 차코'라 불리는 이 지역이 아마존 다음으로 남미에서 두 번째로 큰 생태계이며, 높은 산과 강, 극심한 기온 차, 적은 강우량으로 인한 물 부족을 겪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곳은 빈곤, 영양실조, 영아 사망률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 공중보건 분야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들 사이에서 폭력과 알코올 중독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토지, 물, 교육의 부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9 세기 후반부터 이곳에 존재해 온 성공회 교회의 역할은 선교라는 더 넓은 틀 안에서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변혁적이었으며, 이민자들의 복음화는 제도적 세력보다 훨씬 앞서 이루어졌으며, 그들의 생존을 가능케 했습니다. 복음은 또한 존엄성을 지닌 원주민으로서의 자각을 촉진함으로써 해방과 평등 및 정의를 위한 투쟁에 기여합니다. 선교는 성공회 선교의 다섯 가지 표지 원칙 아래 사회 복지와 신학적 가르침을 결합한 목회적 돌봄으로 전체적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원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려는 진정한 관심, 언어 학습, 그리고 원주민의 영적 관점에서 복음의 해방적 진리로 응답함으로써 신뢰 관계 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새로운 현실인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이자, 전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상호 변혁으로 이해됩니다. 원주민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은 ASOCIANA 시민사회, 성공회 단체 및 다양한 기독교·세속 전통의 기관들이 협력하여 진행됩니다. 기부금으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펌프와 우물을 통해 물 사용권을 보장했으며, 교육과 농업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직물 및 수공예품 생산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영양 상태가 개선되고 판매용 잉여 생산물이 발생했습니다. 교회는 또한 홍수 같은 기후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가옥과 건강에 대한 피해를 해결하고, 이 공동체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자립성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파울로

아비게일, 발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 무엇이 당신에게 희망을 줍니까? 당신의 맥락에서 종교 간 관계의 미래를 생각할 때, 무엇이 당신에게 희망을 느끼게 합니까? 그리고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애비게일

아르헨티나는 다종교적이며 형제애를 바탕으로 한 공화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헌법은 모든 문화에 매우 개방적입니다. 개방성과 환대는 우리의 고유한 특성이며, 최근 수십 년간 우리는 신앙의 부차적 측면과 관련된 서로 다른 기독교 전통 사이의 모든 실질적 위험을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실천의 중심성을 발견했으며, 교회의 보편성을 구축하고 포용하여 왕국을 위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점점 더 헌신하고 있는 노력입니다.

파울로

아비게일님과 오늘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종교 간 대화(Inter Faith Call)'를 더 깊이 탐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 '종교 간 대화'를 방문하셔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제 동료, 캐논 스티븐 스펜서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스티븐, 환영합니다.

스티븐 스펜서

네, 우리는 매우 다른 상황들과 그곳마다 존재하는 도전과 기회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다양한 장소들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항상 생각해볼 만한 좋은 질문이죠. 이 질문에 답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우리는 요한복음 4 장이라는 훌륭하고 풍부하며 시사하는 바가 많은 장을 바탕으로 성경 공부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목마르셨던 장면입니다. 그분은 사마리아 마을의 우물가에 계셨고, 한 여인이 물항아리를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우물에서 물을 달라고 그녀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유대인이셨고 그녀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민족 출신이었고, 서로 다른 신앙을 가졌으며, 서로 다른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들은 서로 적대적이었고, 두 민족 사이에는 큰 적의가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제쳐 두셨습니다. 그분은 마실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분도 인간이셨습니다. 그분도 연약하셨습니다. 그녀가 거기에 있었고, 그녀가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녀와 대화를 나누셨는데, 이 대화는 신학적·영적 의미의 깊은 곳까지 탐구합니다. 우리 각자의 다양한 상황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룹으로 또는 혼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성경 공부를 준비했습니다. 본문에 대한 배경 설명, 질문들, 생각해 볼 점들에 대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활용해 주세요. 성경 공부 자료 링크를 보내드리겠지만, 이미 웹사이트 https://www.lambethconference.org/multi_language_dl/bible-study-resources-inter-faith/ 또한 오늘 이미 언급된 대로, 램버스 선언문 자체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언문은 이 주제의 모든 쟁점들에 대한 매우 풍부한 소개와 접근 방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https://www.lambethconference.org/multi_language_dl/lambeth-call-paper-interfath/

조 주교

감사합니다, 스티븐. 이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수바짓에게 드리겠습니다. 영국 런던 교외인 해로우에서, 주로 힌두교 공동체 중심부에 교구를 둔 분이 인사드립니다. 그녀는 교구가 이웃들에게 다가가 그리스도를 증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힌두교인들과 신앙을 나누는 데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수보짓

다른 종교, 특히 힌두교 이웃들과 식사, 축제, 공동체 행사를 함께 나누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사실 조화는 공식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우정을 통해 자라납니다.

앤드류

고마워요, 정말 좋네요. 다른 분들 추가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앤드류 신부

버밍엄에는 힌두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사는 곳 근처에만도 만디라(사원)가 일곱 군데나 있어서, 제가 알게 된 정말 멋진 공동체입니다. 저는 만디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 종교는 정말 복잡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신앙 안에도 엄청난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바짓이 말했듯이, 저는 힌두교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바를 굳건히 지켜야 했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신들 중 하나가 아닌 하느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때로 어려운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친구가 되고, 제가 그들의 만디라(사원)에 앉아 있을 때, '이것이 제가 믿는 바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비록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들은 그 점을 매우 존중해 주더군요. 카리와 조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그들의 환생에 대한 심오한 철학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깊이를 이해하고,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다른지 탐구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조 주교

감사합니다, 앤드류. 이제 이 질문은 애비게일에게 갑니다. 모리셔스에서 온 질문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롭게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한 분 하느님, 한 믿음, 한 주님을 모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와 협력하여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하느님의 뜻이 하나됨과 사랑을 가져오기 위함임을 받아들이도록 그들을 초대할 수 있을까요?

애비게일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주변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은 헬레니스트, 페니키아인,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행동하시며, 치유하고 해방하기 위해 오신 자비로운 하느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말이나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가 믿는 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립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만나러 가고, 나누러 가고, 함께 걸어가기 위해 갑니다. 이곳은 서로 섞이며 만나는 장소입니다.

조 주교님

감사합니다. 애비게일, 그라시아스. 그럼 계속해 보죠, 다날드 주교님. 영국 웨스트요크셔에 거주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언급하신 것과 비슷한 비율의 무슬림이 거주하는 지역(약 60% 무슬림)을 섬기는 분이 보내온 질문을 주교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그분은 무슬림 신앙 지도자들과 교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조언이나 지혜를 나누실 수 있나요?

대널드 주교

감사합니다. 글쎄요, 제가 공유할 지혜가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말레이시아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말레이시아는... 네, 말레이시아의 경우 60%라는 비율을

공유하지만 그들은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정치적 권력자죠. 반면 귀하의 상황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째, 어떤 종교 간 협력이나 타 종교인에 대한 접근 작업은 그들의 비율이 어떻든 간에 우리 측의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작하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며, 아마도 금전적 투자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자면, 신뢰 구축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선물이나 음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드 축제를 하거나 라마단 기간일 때, 안부를 전하며 할랄 음식을 가져다 드리겠다고 제안하세요. 직접 요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할랄 가게에서 구입할 것임을 약속하세요. 할랄 가게에서 구입할 거라고 말씀드리세요. 작은 제스처로 시작하는 거죠. 브래드퍼드의 토비 하워드 주교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무슬림 및 다른 분들과 많은 일을 하십니다. 그분을 소개해 드릴 수 있다면, 이 특별한 분야에서 함께 걸어가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게다가 그분은 가까이 계십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토비 주교님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조 주교

그리고 다날드 주교님, 이 사실을 모르셨을 텐데, 제가 알기로 토비 주교님이 지금 바로 이 웨비나에 참여 중이십니다. 그래서 실시간 연결이 가능하네요. 안녕하세요, 토비. 이 질문은 루이사에게 드립니다. 위기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도전에 맞서게 하기도 하지만, 내부 다양한 집단에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분열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분열이 아닌 협력을 향해 나아가도록 장려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루이사

개인적으로 차이를 만드는 건, 방금 다날드 주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라마단이나 이드 기간 동안의 작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무슬림을 예로 들자면, 할랄 음식만 보내거나 심지어 간단한 인사만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무슬림들의 좋은 점은, 특히 라마단 기간 동안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인사 한마디, '살람 알라이쿰'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종교적 명절에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종교적 명절을 알고 있으니 간단한 인사말을 건넬 수 있죠. 제가 계속 강조하듯, 이는 협력의 시작이자 다리 놓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램버스 선언의 핵심은 바로 이 다리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서로 다른 신앙 사이에서 우정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있습니다. 제 가장 큰 신념은 결코 누구를 개종시키려는 의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신념과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성공회 가정에서 태어나 성공회 신자로 남아 있으며, 무슬림과 결혼했지만 이는 결코 제 정체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공회 교구에서의 제 사역이나, ACC(성공회 교회 협의회) 회원으로서의 활동, 로마 성공회 센터 회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죠. 또 하나 강조해야 할 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매우 세속적인 국가이지만, 그 아름다움은 모든 신앙과 종교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념과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동등한 지위를 누립니다.

조 주교

루이사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귀하께서 갈등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으신다는 점이 매우 분명히 느껴집니다.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고, 다리 역할을 하며 갈등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시는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한 가지 분명한 방식입니다. 참고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다음 램버스 회의 주제는 화해입니다. 다음 질문은 앤드류 신부에게 드립니다. 인정받기 위해 필사적이고, 전통 종교 신자들을 끌어들이며 지위를 얻으려는 이단 집단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할까요? 여기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일본에서 온 옴 진리교(Om Shinrikyo) 맞죠?

앤드류 신부

여기에는 그런 단체가 없지만, 사이언톨로지, 몰몬교, 문선명 교단 등 다른 종교 단체들이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맞아요, 이 질문은 일본에서 왔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맞아요, 바로 근처에 아주 큰 사이언톨로지 교회가 건설 중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버밍엄에는 정말 다양한 종교가 다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종종 종교 간 협력 단체에 참여하려 한다는 거예요. 특히 소수 종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자이나교나 바하이교도들 역시 그런 단체에서 인정받는다고 느끼곤 합니다. 물론 그들은 더 오래된 종교들이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마찬가지로 소수 종교라서 훨씬 더 큰 종교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죠. 때로는 복잡한 문제이며, 다른 이들의 차별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함께 무대에 설 대상을 신중히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박해를 받는 아흐마디야 같은 집단과 협력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 차별에 가담해서는 안 되며, 공개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지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타인에게 어떤 인정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만나서 사진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몇 번 그런 말을 해야 했고, 이렇게 말했죠.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기쁘지만, 사적으로 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지만, 개인으로서 당신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하고 싶습니다." 통일교에서 알게 된 한두 분과는 자녀 양육 이야기나 삶의 모습에 대해 나누며, 인간으로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자 이웃이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을 붙잡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치적·공개적으로 매우 신중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이렇게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혹은 '사진 촬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때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사이의 그 경계를 헤쳐나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조 주교

감사합니다, 앤드류. 다날드 주교님, 이 질문은 적어도 시작은 주교님께 드리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질문인데, 누가 보냈는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나라, 특히 필리핀 남부 지역에서 무슬림들과

나쁜 경험을 한 분입니다. 그곳에는 오만함과 적대감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황이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한 태도와 갈등 속에서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날드 주교

필리핀의 사랑하는 친구들, 이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저는 여러분이 겪는 그 상처, 때로는 부당한 대우, 그리고 그곳에서 직면하는 박해에 공감합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쪽에서는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음 순간 교회가 불타는 것을 보거나 교회로 가는 길이 막히는 등 그런 일들을 목격하게 되니까요. 저는 단지 공감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친구들,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일하거나 걸을 수는 없습니다. 필리핀 남부의 상황은 때때로 단순한 소란 이상으로 폭발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복음에 충실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데 충실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과 인정, 감사, 어느 정도의 존중을 나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느 정도의 존중'이라는 표현을 선택한 것은 상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처지는 힘듭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듯, 여러분도 우리와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 주교

남아시아 내 연대감이 느껴집니다. 다음 질문은 수바짓에게 갑니다. 리버풀에서 인사드립니다. 개종 문제가 종교 간 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수보짓

저는 모든 종교가 자비, 정직, 존중을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공통된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우리는 고유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일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대화에서 누구를 어떤 종교로 개종시킬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과 가르침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를 위협으로 보는 대신, 다양한 색깔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 믿음을 풍요롭게 하는 선물로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개종시키기보다는 나누기를 제안합니다.

조 주교

수바짓, 감사합니다. 개종이라는 주제에 대해 다른 분들도 의견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특히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에 관한 질문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세계 일부 지역에서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비게일, 아르헨티나에서도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아비게일

네, 역사적으로 우리는 유대인들과 매우 평화롭게 지내왔습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일부 신앙을 물려받았기에 공통된 신앙을 가지고 있죠. 메시아에 관한 신앙의 공통점을 공유하며, 예수를 메시아나 예언자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화롭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는 화해를 위한 길이며, 우리의 의무를 함께 나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조 주교

고맙습니다, 아비게일. 기독교인과 유대인에 대해 말씀하실 분 더 계신가요? 없으시군요, 좋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루이사님께 드릴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모든 종교에서 '더 높은 존재'라는 공통된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루이사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더 높은 존재에 대한 공통된 기반이 있죠. 제 생각에 모든 종교, 무슬림, 기독교인, 유대인 모두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며 성령과 삼위일체를 믿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종교들은 전능하신 하느님에만 집중하죠. 그러니,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힌두교와 불교도들도 초월적 존재를 믿습니다. 아브라함계 종교와는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초월적 존재를 믿습니다.

조 주교

감사합니다. 아마 한 질문 더 받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앤드류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이 질문은 종교 간 대화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인데, 바로 '모든 종교에 대한 관용과 존중을 촉구하는 부르심과, 세상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부르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앤드류 신부

감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를 함께 유지하는 근본적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는 것에 관한 질문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공회 공동체로서 개종과 개종의 어려움에 관한 대화도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지닙니다. 그리고 개인으로서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지닙니다. 저는 항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계명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이를 위해 히브리 성경을 인용하셨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균형입니다.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 그 모든 의미를 실천하되, 동시에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이라는 조건을 달고 몇 가지 조건을 열거하셨다면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은 것처럼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모두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저는 그것이 사랑의 균형,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 하나만 실천하는 것이 훨씬 쉽지만, 우리가 그 위대한 계명을 끊임없이 함께 지키려 노력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부름받은 곳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 주교

앤드류, 정말 감사합니다. 전 세계의 친구 여러분, 이 웨비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램버스 콜에 대한 종교 간 대화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며,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그룹별로 채팅창에 표시될 이메일을 통해 이 선언문을 탐구하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 월에 화해를 주제로 한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램버스 선언이 있을 예정임을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며, 다날드 주교님, 이 웨비나에 모인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다날드 주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을 다 다루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다 되어 기도하겠습니다.

마침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웨비나 시간뿐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마치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ttps://otter.ai 제공